

5/21(토) 에스더 6-10장 보이지 않는 손길

에스라/느헤미야서의 귀환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,
에스더서의 잔류 공동체 이야기에는 율법, 안식일, 국제결혼,
언약 간증 등의 종교적 이슈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.
반면 <페르시아 왕>이라는 단어는 190차례나 언급되며
<수산궁>에서 벌어진 정치, 권력의 세계를 다룹니다.

<수산궁>은 세상 한 복판을 상징합니다.
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지 않는 정치/경제/사회 현장입니다.
하나님은 <성전>뿐 아니라 <수산궁>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.
다윗, 솔로몬 뿐 아니라 <하만>, <아하수에로>같은 세상 권력도
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의 일부입니다.

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과정들과(2:9,15,17),
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(2:22) 등은
<우연>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(6:1-3,11).
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 열 손가락으로 일하시는
하나님의 <보이지 않는 손길>입니다(롬8:28, 스7:9, 8:31, 뜨2:8,18).

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유월절 다음 가는 절기로 여깁니다(9장).
<해방자, 구원자 하나님>을 묵상하는 두 절기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.
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총리와 왕후를 배출한 민족입니다(창41:43, 예2:16-18).
그러나 영아학살과 노예 살이, 민족 멸절의 위기 또한 겪게 됩니다(출1:16, 예3:6).
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은 그들의 근면이나 수완, 고위직 인사 덕이 아닙니다.
하나님의 <보이지 않는 손길>이 생명과 삶을 떠받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

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<하만>과 마주했습니다.
홀로코스트라는 뼈아픈 역사를 지나며 <제국>의 변덕과 잔혹함,
세상의 조약과 협약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.

“눈을 들어 산을 보네.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?
아니, 내 힘은 오직 하나님,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”
(메시지 성경, 시편 121:1-2)

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까?

- ❶ <수산궁>과 그곳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?
- ❷ 나(자녀)를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(경험)합니까?